

AUTHOR 추태화

TITLE 종교개혁의 영성과 문화적 상관성
-신앙의 내면화와 근대 문화 형성에 관하여-

IN 역사신학 논총
vol.4 (2002): 300-317

종교 개혁의 영성과 문화적 상관성

- 신앙의 내면화와 근대 문화 형성에 관하여 -

추 태 화

(안양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종교 개혁은 기독교사에 있어서도 물론이거니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를 일으키게 하는 주제이다. 더구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면서 존재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명제를 남김으로써 종교 개혁은 지금까지 교회 개혁이라는 문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시대 속의 교회라는 상황화(contextualization)의 현실 앞에서 종교 개혁은 공시적 연구(horizontal study)와 통시적 연구(diachronic study)에 기꺼이 그 모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종교 개혁에 관한 공시적 연구는 특히 신학과 정치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신학 분야의 예를 들자면 성만찬에 관한 논쟁, 예배 예식의 개혁에 대한 이론,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례에 관한 논쟁, 신앙 고백(Augsburg, Heidelberg, Westminster 등), 교회론, 교회와 국가의 관계 등이 그러하다.

종교 개혁에 대한 통시적 주제의 연구로서는 종교 개혁을 각 시대와 각 나라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수용했는가 하는 분야로 압축되는데, 예를 들면 루터파와 독일 경건주의 운동(Spener, Francke), 루터파와 영국의 감리교 운동(Wesley 형제), 루터파 신학과 합리주의 철학 등의 관계 연구로 구체화되고, 칼빈주의의 경우는 영국의 청교도, 네덜란드의 정치, 나아가 미국의 청교도 운동, 대각성 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종교 개혁은 교회 개혁 모델의 하나로서, “한국 교회 갱신에 종교 개혁이 어떻게 영

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소장학자들에게 관심 있는 연구 대상으로 등장한다.¹⁾

지금까지 종교 개혁을 연구한 많은 글들은 주로 신학적 논쟁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이 지향하는 방향은 “문화적 접근”(cultural aspect)으로서 종교 개혁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 다소 관심 밖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문화라는 개념이 왜 키워드로 나타나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그 동안 종교 개혁을 연구하는 많은 글들이 대부분 몇 가지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다양한 폭을 개진하지 못했다. 둘째, 그러하므로 종교 개혁에 대한 명제적 연구는 풍부하였으나,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실제 내적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현대에 들어 새롭게 일기 시작한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는 학문과 실생활과의 간격을 메꾸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종교 개혁에 관한 연구에서 부진했던 부분을 재구성해 보려는 것이다.²⁾ 넷째 종교 개혁에 관한 연구는 종교 개혁가들의 신학 사상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함으로써 시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요소에 무게를 실어 주지 못했다는 단점이 발생했다. 종교 개

- 1) 종교 개혁에서 한국 교회 갱신의 모델을 찾으려는 연구는 적잖이 발견되고 있다. 김옥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현대 목회의 적용, 기독교신학대학원대, 석사논문, 2001. 박용현, 종교 개혁 신학자들의 시각에서 본 열린 예배 평가, 한신대 신대원, 석사논문, 2000. 오창주, 루터의 종교 개혁 정신을 통한 한국 농촌 교회 살리기 방안, 호남신대 신대원, 석사논문, 2000. 석정수, 종교 개혁 원리에 나타난 교회 일치 근거에 관한 연구: 장로교 교회 일치 방법론을 위한 사적 고찰, 한신대 신대원, 석사논문, 1999. 김영기, 종교 개혁의 예배 이해에서 본 한국 교회 예배 순서 갱신에 관한 연구, 총신대 신대원, 석사논문, 1998. 박성규, 마틴 루터의 만인제사직론과 헨드릭 크레머의 평신도 신학 비교 연구: 한국 교회 평신도 신학과 사역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신대원, 석사논문, 1995. 구인섭, 종교 개혁 원리에 입각한 한국 교회 예배 갱신,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아세아연합신대원, 석사논문, 1990. 최진선, 교회 일치적인 면에서 본 루터와 현대 교회의 과제, 장로회신대, 석사논문, 1989.
- 2) 중세를 문화 연구의 입장에서 관찰한다는 것은 아래로부터, 즉 백성들의 실제 생활로부터 그 시대를 재구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종교적으로는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지만, 중세를 전적으로 암흑기라고 폄하할 수 없는 시대적 특징과 고유한 삶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논지의 책들은 다음을 참조. 존 볼드윈, 중세 문화 이야기, 혜안, 2002. 마이클 카밀, 중세의 사랑과 미술, 예경, 2001. 자크 르 고프, 중세에 살기, 동문선, 2000. 장 베르동, 중세의 쾌락, 이화사, 2000. 장 베르동, 중세의 밤, 이화사, 1999.

혁은 루터와 칼빈, 쾰링거 등을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개혁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혁은 역사 속에서 결코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종교 개혁을 지속시킨 주변(Melanchton, Bucer, Farrel) 및 후대 인물들이나 그 외의 여러 여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르네상스 운동, 휴머니즘(Erasmus), 유럽과 아랍의 문물 교환, 세속화 과정, 중세 교회의 부패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고려함으로써 이 글이 주안점으로 삼는 분야는 종교 개혁과 문화 형성의 상관성에 있다. 여기서 티리히(P. Tillich)의 유명한 명제를 기억해 내는 일이 도움이 된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종교 개혁의 영성이 어떤 문화를 형성해 갔는가 하는 질문이 연구의 키워드가 되는 셈이다. 여기서는 물론 문화의 넓은 영역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내면과 정신 문화를 이루는 인문학, 예술 부분에 관해 언급하려 한다. 이 글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상적 배경과 개혁의 구체화 과정이 어떻게 문화 형성을 위한 행위의 내적 동기가 되었는가(2장), 그리고 그 요소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문화 분야로 자리잡아 갔는지 밝혀 보려 한다(3장).

II. 종교 개혁과 문화 변동

1. 16세기 유럽의 정치 구도

종교 개혁은 1517년 루터(M. Luther)가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공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종교 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에 불과하다. 종교 개혁은 영국의 위클리프(Wycliff) 성경 번역, 보헤미안의 후스(Huss)로부터 그 물줄기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이 무덤으로부터 파헤쳐지거나 화형을 당한 사건은 바로 중세 교회가 두려워하였던 근대의 종교적 여명에 기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 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중세(The Middle Age)와 근대(Modern)를 긋는 시점에서 있는 것이다.

16세기의 정치 구도를 보자면 이미 교황권과 정치권 사이에 분리의 표징이 완연히 드러나고 있다. 교황과 교회 주권으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제국이 되어 갔고, 유럽 각처에서 그 부패가 극에 달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중세 봉건 제도를 유지하던 구조가 무너져 갔고, 부유한 신흥 상인 계층이 등장하며, 기사 계급이 몰락하는 과정을 겪는다. 성주 밑에서 더 이상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행사할 수 없었던 기사들은 자유사상가가 되거나(Urlich von Hutten), 혁신적 행동의 중심이 되어 갔다.³⁾

16세기 유럽의 정치 구도는 종교 개혁이 정치적인 이권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다른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로마 카톨릭과 다른 예배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으면서도, 실상은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였다. “성주의 신앙 고백에 백성은 따른다”는 선언이 공포된 것은 이를 반영하는 증거라 하겠다.

16세기 유럽은 민족국가(nation)에 대한 개념이 싹트고, 게다가 각 민족이 형성하고 있는 고유의 언어, 관습, 역사,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민족주의가 대두하게 된다. 게다가 교황권과 교회의 부패와 지역 성주들과의 갈등은 중세 시대를 유지하였던 거대한 제국을 붕괴하게 만든 요인이 된다. 북쪽의 영국, 서쪽의 스페인, 중앙에 프랑크 왕가, 동쪽에 함스부르크 왕가, 남쪽에 이탈리아와 로마 카톨릭의 본거지 바티칸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독일은 당시 여러 지역 제후로 나뉘어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이루지 못하였다. 독일의 선제후 제도는 이런 분열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2. 16세기 유럽의 사회 문화적 상황

십자군 전쟁 이후 봉건 제도가 흔들리면서 각 지역의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특히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은 종교권의 도덕적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사제단이 자행하던 성직 매매, 절도 있는 독신 생활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한 도덕적 문란, 게다가 일상적

3) Hans Lilje, Luther, 23쪽 이하.

인 생활까지 종교적 권위로 통제하는 사제의 독선주의는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교권의 실추를 가져왔다. 당시 사제들 중에는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설교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교권을 돈으로 사들인 결과였다.

사회 계층은 종교 지도층, 귀족층, 일반 백성으로 확연히 구분되었다. 종교 지도자들인 사제단은 귀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지역 사회를 장악하면서, 교권을 행사하였고, 귀족들은 교회의 권위를 배경으로 절대적인 지배 권력을 행사하였다. 농민들과 시민들은 교리와 예배로부터 멀리 있었다. 사제단이 신앙 생활의 모든 것을 통제하므로 신자들의 신앙적 자의식은 싹틀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신앙적으로는 중세 특유의 영지주의적이거나 마술적인 영성(Magical Spirituality)에 유혹되기 일쑤였다. 예를 들면, 수도원을 순례하며 고행과 기도를 한다든가, 성자, 성물(聖物), 혹은 성자의 유골, 유품 등을 신앙의 한 도구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십자가, 목주도 신비한 신앙 체험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사회 지도층과 일반 백성들과의 괴리가 더욱 심화된 것은 실제적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이었다. 14세기 이후 유럽 사회는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도처에 기근이 지속되었고, 흑사병으로 불리는 페스트는 유럽 사회에 치명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1347-52년 사이에 페스트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당시 유럽 인구의 1/3에 이르렀다. 이로써 유럽은 종말론적인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⁴⁾

또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영국과 프랑스가 벌인 100년 전쟁, 1419-1435년 간 계속된 후스 전쟁, 1455-1485년에 있었던 장미 전쟁, 1453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중심지인 비엔나 직전까지 진격한 이슬람의 세력 등은 사회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농민과 시민들은 명분 없는 전쟁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

4)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신앙적 정조는 종말론이었다.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성경의 내용은 사회적 불안에서 출발하여 집단 히스테리로 변질되어 가기도 하였다. 독일의 기독교 작가 W. Bergengruen의 *Am Himmel wie auf der Erden*(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작품은 홍수로 심판한다는 종말론적 불안이 베를린 사회를 뒤흔들었던 중세 시대의 한 실화를 사건을 소설화하고 있다.

야 했으니 불만은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는 이를 잘 말해 준다.

3. 문화 행위 근거로서 “민음의 재발견”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백성들은 종교를 의지하게 되고, 이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교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로 돌파구를 찾게 된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중세기 말의 교회와 교권은 윤리적인 혼란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의 권위와 전통으로 균열하려고 하였다. 게다가 스킨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사변적 논리로 굳어진 교리와 현실과 동떨어진 미사 예식은 가난과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였던 백성들의 종교성을 충족시켜 줄 수 없었다.

예배를 고찰해 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시화된다. 중세의 미사 예식은 사제들 중심의 예배였다. 당시 예식 언어인 라틴어는 백성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고, 성경도 자신의 언어로 읽을 수 없었다. 예배의 참석자들은 수동적인 위치로 내몰려 마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 들일 처지로 이해되거나 구경꾼으로 전락한 느낌이었다. 미사의 분위기는 침체되었고 침울하여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신자들은 우울한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세 미사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였는데, 구원의 기쁨보다는 구세주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주된 정조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배 참석자들은 죄책감을 더 갖고 예배를 마치게 되는 분위기였다.

더구나 구원에 대하여는 인간의 행위(human works)를 강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신칭의는 그런 면에서 가히 혁명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다. 루터는 칼빈에 비하면 주관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본다. 루터의 회심 사건에서 보듯이 루터는 급격한 상황 변화에 이렇게 서원한다. “성 만나여, 나를 구원해 주시면 종신토록 주를 섬기겠습니다.” 루터를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가게 한 일이나 서원을 하게 한 일은 심리적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주관적 감성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루터의 사상을 관통하는 주제는 “어떻게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jus-

tification)와 “어떻게 죄인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graceful God)이다.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접근으로 시작한 곳은 죄인의 심령에서였다. 루터에서 믿음이 주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이러한 접근 때문이다. 그의 의인 사상, 만인제사장설, 소명론은 중세적 믿음 이해에서 근대적 믿음 이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 있는 것이다.

칼빈은 개인적인 믿음에서 나아가 전우주를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주권(sovareignty of God)에서 출발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그는 조직적인 논리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주의 질서, 공의에서 믿음을 수용하려고 한다. 칼빈은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고 지식(knowledge)”이라고 말한다.⁵⁾ 줄여 표현한다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곧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 믿음은 인간의 감정과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⁶⁾ 칼빈주의는 믿음과 삶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한다. “우리는 알기 위하여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가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믿는다.”⁷⁾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는 종교 개혁의 중심에 있는 주제였다. 루터와 칼빈의 믿음의 이해는 곧 믿음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였다. 믿음은 중세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연 인식과 행동의 중심에서 있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한 인식이 싹트면서 믿

5) 기독교 강요, 제3권, 18쪽.

6) 칼빈은 믿음과 생활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고 생명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오성과 기억력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 복음을 해독하려면 복음이 영혼을 전적으로 점령하고 속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우리는 종교 생활의 근원이 되는 교리에 첫 자리를 주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그 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리는 우리의 속마음에 들어가며, 다음에 일상 생활이 되며, 우리를 개조하고 동화 시킴으로써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 복음의 효력은 마음 속 가장 깊은 감정에까지 침투해서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기독교 강요, 제3권, 197쪽.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신자의 내면에서 생활의 동인이 되는 감정,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며, 이는 종교 개혁 영성이 어떻게 문화 형성으로 확대되어 가는지 증거하는 논거가 된다.

7) H. Mieter, 칼빈주의의 기본 사상, 41쪽.

음의 내면화 과정(Verinnerlichung)이 형성하게 된 것이다.⁸⁾ 이는 신자들이 신앙의 내용을 인식, 성찰, 사유하는 인식론적 내면화의 길을 개척한 공로로 인정받는다. 즉, 신앙 정신(Geist des Glaubens)의 재발견을 이룩한 셈이다.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문화 행위의 방향이 정립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개혁주의적인 선포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생활과 관계하였던 것이다. 개혁주의적 선포는 생활의 질서를 바로잡아 갔다.⁹⁾

종교 개혁은 중세와 근대 사이의 고리를 연결하는 주요한 전환점이 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종교 개혁은 일정한 이론과 이념을 가지고 진행될 일관성 있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유럽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시대적 변화와 이를 이어서 국지적으로 일어난 종교, 정치적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목요연하게 문화 변혁을 고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중세는 종교 개혁으로 마감되었고, 근대는 종교 개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종교 개혁은 중세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반면에 근대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종교 개혁의 영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를 이루게 되었는지 고찰해 보려고 한다.

III. 문화 개혁으로서 종교 개혁

1. 기독교적 휴머니즘

믿음의 새로운 이해는 근대로 접어 드는 서구 문명의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

8) 여기서 내면화를 규정하는 단어로 독일어 Verinnerlichung을 사용한 것은 영어의 spiritualize보다는 더욱 육화(incarnation), 체험화의 의미를 깊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에 사용된 정신이란 단어를 위해 독일어 Geist로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9) 종교 개혁 시대에 공표된 예배 개혁서, 신앙 개혁서, 신앙 인식의 변화에 대한 수많은 글들은 실상 신자들의 생활 질서를 바로잡는 제안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위 주장을 증거하는 책은 다음을 참조. Robert Stupperich, *Reformatrische Verkuendigung und Lebensordnung* (개혁주의적 선포와 생활의 질서), Wuppertal: R. Brockhaus, 1988.

다. 중세 때는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질 못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는 언제나 사제가 개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단체로서의 교회가 서 있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仲保)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 의해 가려 있었다. 종교 개혁이 믿음을 재발견하게 되면서 개인은 하나님 앞으로 직고(直告)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것이며, 인간의 상황(conditio humana)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다.

“믿음”을 찾은 종교 개혁가들에게 다른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을 발견하게 했다는 점이다. 중세까지의 관심은 인간이 아니었다. 당시의 모든 가치관은 신, 신국, 신국의 대리인으로서 교회, 국가, 신의 위임자로서 왕권 등으로 귀결되었다. 초월적이며 명목적인 가치관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개체로서의 인간은 시대적 관심에서 소외되었었다. 그러나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으로서 인간”(simul justus et peccator)을 회복한 개혁가들은 인간의 상황을 지동설(地動說)의 경우와 같이 사유의 중심으로 이끌게 되었다. 믿음을 소유한 신자의 주관성이 기독교 휴머니즘과 연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로부터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과 삶, 내면 세계, 감정, 의지와 행위 등이 성찰의 주제가 된다.¹⁰⁾ 종교 개혁으로 시작된 정신의 내면화 과정은 기독교 휴머니즘의 형태로 자리를 잡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개혁 의지를 구현해 나가게 된다.¹¹⁾ 인간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homo imago Dei)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은 인간 회복을 위한 영성을 키우게 되었다. 종교 개혁자들이 교육, 예술, 문화 등 인간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점은 이러한 사상에 기인한다 하겠다.

10) 루터 연구가인 지원용 박사는 기독교적 휴머니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루터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종교 개혁 운동은 인간 개인의 내면적인 가치의 자각으로 전개되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예로부터 내려온 봉건적인 사회 질서 속에 휩쓸렸던 개인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즉, 개인의 내면적인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관이 재발견된 것이다.” 배한국 편, 루터와 종교 개혁, 152쪽.

11) 믿음의 재발견이 정치 사상으로 발전한 것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실행하려고 했던 정치 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믿음과 경제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M. 베버의 연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베버는 종교사회학적인 연구에서 금욕, 예절, 절제, 선민 사상 등을 포함하는 청교도적 신앙이 자본의 축적을 가져왔고, 이를 토대로 서구 자본주의가 형성된다고 해석한다.

기독교 휴머니즘은 후대에 관념주의(idealismus)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경건주의의 토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근대 신학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쉴라이어마허(F.D.E. Schleiermacher, 1768-1834)는 그의 신학론에서 직관(Anschauung)과 감정(Gefuehl)을 펼쳤는데, 인간의 내면과 체험에 기반을 둔 신학의 출발은 이미 종교 개혁의 주관성(subjectivity)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겠다.

2. 신앙 교육에서 사회 교육으로

중세의 교육 제도는 교회에 종속되어 있어서, 교회와 교황의 헌신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목적이라면 교권이나 교회와 교리를 전통적으로 고수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생활이나 인간 자체의 계몽과 계발을 위한 교육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제도권 중심의 교육 체계가 생소하였던 것이다.

루터는 당시 교육의 이원화된 모습에 실망을 느꼈다. 당시의 교육은 수도사적 교육과 생활 원리, 수도원적 원리와 정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서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교육이었다. 게다가 종교 개혁의 과정에서 많은 수도원과 교회가 교육 기관을 폐쇄시킴으로써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갔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반대하는 측으로부터 “루터파가 지배하는 곳에는 학문은 사라진다”¹²⁾는 오명을 쓸 정도였다. 그리하여 루터는 백성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학교와 교육 과정을 설립하는 일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구상한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교육 이념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 사업장, 시장, 공장 등 삶의 다양한 활동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루터가 생각한 교육은 하나님과 이웃, 국가에 모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노동에 관한 뚜렷한 이념을 제시했다. 노

12) Arnold E. Berger, *Martin Luther und die deutsche Kultur* (마르틴 루터와 독일 문화), Berlin: Ernst Dormann & Co, 1919. 563쪽.

동은 소명(Berufung)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업을 천직으로 여겨야 하며, 각자의 직업(Beruf)은 소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하는 과정으로 본다.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실천하는 일이다.¹³⁾ 루터의 교육은 성서 교육에서부터 출발하여 기독교 교육, 나아가 사회 교육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루터의 교육 이념에 의하자면 첫째, 개개인은 교육을 통해 가정과 교회, 국가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사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하며, 둘째, 성품을 가다듬어야 하며, 각자가 지닌 가능성을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전인격적인 인간의 발전을 이루며, 가정에서, 교회와 국가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칼빈의 경우에서도 교육은 하나님에 관한 신실한 지식을 기본으로 하는 신앙 교육에서 출발하여, 인문학적 세계로 넓혀 가는데, 여기에서도 성경은 그 토대가 된다. 특히 칼빈은 구체적으로 1538년 공립학교 설립을 위한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문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1559년에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에는 예과에서 인문학을 주로 배우고, 본과에서 신학 외에도 예술을 배우도록 하였다.¹⁵⁾ 칼빈의 영향을 연구하는 저서들은 칼빈주의가 학문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⁶⁾

종교 개혁가들의 교육관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 교육에서 출발하여, 가정, 국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온전한 시민을 육성하려는 시민 교양 교육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개혁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전쟁으로 생긴 사

13) “청교도 노동관은 인간의 노력을 성스러운 일과 세속적인 일로 나누는 것에 대한 종교 개혁의 거부로 출발한 것이 분명하다. 곧, 모든 노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졌다는 것이다.” cf. 알렌 카든, 청교도 정신, 212쪽.

14) 이재관, 종교 개혁이 그 시대의 교육에 미친 영향, 침신대 신대원, 석사논문, 1989, 5쪽 이하.

15) 앞의 책, 24쪽 이하.

16) 칼빈주의는 세 가지 원리에서 학문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A. 카이퍼는 칼빈주의가 학문을 촉진하고 그 원칙이 학문적 정신을 요구한다는 명제 아래 다음과 같이 학문 발전에 기여한 근거를 든다. ① 칼빈주의는 학문에 대한 사랑을 장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② 칼빈주의는 학문을 제 영역에 회복시켰다. ③ 칼빈주의는 학문의 본질적 자유를 발전시켰다. A.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134-171쪽.

회의 소외 계층, 빈민, 노인 등을 위한 사회 복지를 고려한 사회 교육을 염두에 두기도 하였다. 후대 경건주의 운동의 기수였던 슈페너(J. Spener)는 “Pia desideria”(경건의 열망)에서 경건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예술성의 확대

중세 시대의 예술은 종교 예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술은 거의 교회가 관장하고 있어서, 성경의 내용을 그리거나 교회를 장식하는 성화, 벽화, 주교, 성인들을 그리는 인물화 등이 주 소재가 되었다. 중세의 음악이 대부분 종교 음악이었던 것과 같이 당시의 예술은 종교적 실용 예술이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 없었다. 예배시 사제들이 라틴어로 찬송을 하므로 백성들은 이해도 따라 부를 수도 없었다. 성만찬에서 일반 신자들이 배제되었던 것처럼 찬송에서도 그러했다. 루터는 전래의 교회 음악에다 민중적인 민요풍의 음악을 가미함으로써 일반 백성들의 입을 열어 주었다. 그의 예술성은 음악에 관해 이렇게 토로하게 한다.

“나는 항상 음악을 사랑한다. ... 우리들은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는 음악에 대한 기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존경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청년이 음악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를 설교자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¹⁷⁾

“음악은 마귀를 물리치고 인간들을 즐겁게 만들며 분노와 불결과 거만 등 모든 것을 물리친다. 나는 신학 다음으로 음악을 손꼽았으며 최고의 존경을 돌린다. 비록 내가 가진 음악 상식이 적은 것이기는 하나 나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¹⁸⁾

그러나 쾰빙글리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음악이 가져다 주는 몽환적 분위

17) 배한국 편, 루터와 종교 개혁, 지원용 박사논문집, 서울: 컨콜디아사, 1993. 172쪽.

18) 이재관, 앞의 책, 7쪽에서 재인용.

기, 미술적 정조 때문에 자신이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궁적 예배에서 음악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칼빈은 루터와 쾰링의 중간에 머물렀다. 칼빈도 비록 교회 안에서 속된 예술품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였지만 음악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음악에 대한 종교 개혁가들의 상이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은 후대에 엄청난 기독교 음악을 결실하게 하였다. 바하의 “마태수난곡”이나 헨델의 “메시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¹⁹⁾

종교 개혁의 영성이 미술 분야에 영향을 준 바로는 대표적으로 뒤러와 렘브란트를 들 수 있다. 뉘른베르크 출생으로 루터파의 영향권에서 활약한 뒤러(A. Duerer, 1471-1528)와 네델란드 레이덴 출신으로 개혁주의 영향권에서 활약한 렘브란트(H. van R. Rembrandt, 1606-1669)는 비록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 경건한 삶 자체를 엿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앙의 깊은 내면화 과정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공로는 여러 가지다. 첫째, 종교와 귀족에 봉사하던 미술을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이들을 시각을 통해 백성들의 꾸밈없는 삶이 묘사되게 되었다. 둘째, 성경 이야기에 관한 주관적인 감성이 자유롭게 표현되었다. 그들이 그린 성화들은 그런 면에서 시대적인 생명을 부여 받았다고 평가된다.

4. 문학 장르의 발달

휴머니즘의 발흥으로 고대 그리스-로마 문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새로운 해석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인쇄술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게 된다. 게다가 종교 개혁 운동이 유럽 전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청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관심, 성명서, 신앙 고백서, 개혁문, 비판을 다룬 문건 등등이 독자층을 형성해 가면서 서적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었다. 독일을 비롯한 종교 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에서는 “팜플렛을 이용한 개혁 운동의 대중화와 개혁 논의의

다양화”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²⁰⁾

문학 분야에서는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그리스-로마 고전들이 많이 읽혔는데, 이는 라틴어학교에서 고전 작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작품으로는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의 자기 고백적인 문체는 서양 문학에 주제면에서나 문체 면에서 큰 발자취를 남겼다. 신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고백록과 같은 글쓰기 방법은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고 사유하는 지식인들에게 글쓰기의 선례가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종교 개혁 시대에 계속 이어지다가 이후 파스칼에 와서 “팡세”, 루소의 “참회록” 등으로 내적 기록 문학으로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²¹⁾

문체면에서도 종교 개혁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켰다. 수사학이 그 한 분야인데 이는 유럽 문학사에서 그리스-로마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정치적 발언, 대중 선동용 웅변, 문학 표현의 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종교 개혁 시대에 와서 수사학은 로마 카톨릭과 개혁가들 사이에 애용되던 표현 방법이 되었다. 상대방에 대한 은근한 멸시로부터 시작하여 노골적인 공격에 이르기까지 수사학은 종종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풍자(satire), 은유(metaphor), 패러디(parody), 아이러니(irony) 등은 이 시대에 자주 쓰이던 방법이였다. 이로써 닫혀 있는 자아는 자신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활로를 얻었으며, 이는 곧 신앙적 자아의 자유를 의미하게 되었다.

아이로니컬한 면이지만 부패한 로마 카톨릭교회와 교권을 향해 활용하던 수많은 수사학적 표현들은, 나중에 계몽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 역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종교 개혁을 둘러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은 근대의 언론과 출판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15세기에 구텐베르크(Gutenberg)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처음 인쇄한 책이 성경인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20) 추성호, 인쇄술의 발달과 루터의 종교 개혁, 계명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44쪽 이하.
21) 루터가 얼마나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났으며, 그의 작가적 창조성이 종교 개혁에 기여했는가 하는 연구는 다음 책을 참고, Martin Brecht, *Luther als Schriftsteller* (작가로서의 루터), Stuttgart: Calwer Verlag, 1990.

19) “Luther 없이 Heinrich Schuetz를 생각할 수 없고, Luther 없이 J.S. Bach를 생각할 수 없다.” 김철륜, 교회음악론, 서울: 호산나 음악사, 1990, 76쪽.

VI. 맺는 말

종교 개혁이 역사에 남긴 영향은 지대하다.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는 종교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정도이다. 종교 개혁은 유럽 대륙에서 시발한 개혁 운동이지만 영국, 미국, 그리고 멀리 남 아프리카나 동양의 한국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따라서 종교 개혁은 몇몇 신앙의 지도자들이 일으킨 운동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한다.

종교 개혁에 관한 연구는 종교적, 신학적, 정치적, 경제적 연구들이 많이 눈에 띈다. 종교 개혁이 중세와 근대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중심에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신앙 자아의 발견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문화 개혁은 바로 신앙인 안에 존재하는 신앙적 주관성에서 태동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가의 영성이 문화적 소명을 갖고 있으며, 신앙의 내면성(innerlichkeit)이 밖으로 표출될 때 문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시대가 갈급해 있는 문화 변혁의 방법과 목표로 삼을 만하다.

종교 개혁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문화와 문화 연구 방법론과 만난다면 기독교 영성에 뿌리내리는 문화를 개발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문화적으로 혼란한 현대에 보다 폭넓은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며, 현대인들의 삶과 문화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 Karin Bornkamm und Gerhard Ebeling (Hrsg), Martin Luther Werke I-VI, Frt/M: Insel Verlag, 1982.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전 3권), 김중흠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24쇄.

논문

- 김종렬, 종교 개혁의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일고,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9.
 윤종훈, 종교 개혁이 독일 사회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소고, 16-17세기 근대 독일 사회를 중심으로, 총신대 신대원, 석사논문, 1994.
 전원균, 루터의 종교 개혁이 16세기 독일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 침신대 신대원, 석사논문, 1988.
 정현태, 16세기 종교 개혁이 독일 사회에 끼친 영향,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1.
 추성호, 인쇄술의 발달과 루터의 종교 개혁, 계명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홍인택, 종교 개혁의 사회적 배경 연구, 16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총신대 신대원, 석사논문, 1991.

저서

- 배한국 편, 루터와 종교 개혁, 지원용 박사논문집, 서울: 키클디아사, 1993.
 Arnold E. Berger, *Martin Luther und die deutsche Kultur*, Berlin: Ernst Dormann & Co, 1919.
 Martin Brecht, *Luther als Schriftsteller*(작가로서의 루터), Stuttgart: Calwer Verlag, 1990.
 A.Kuyper, *Lectures on Calvinism*, 칼빈주의 강연, 김지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2판.
 Allen Carden, *Puritan Christianity in America. Religion and Life in Seventeenth-Century Massachusetts*, 청교도 정신,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과 생활,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Hanns Lilije, *Luther*, Reinbek bei Hamburg: Rowohlt, 1965.
 H.Mi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칼빈주의 기본 사상, 박윤선, 김진홍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0/재판.
 RGG(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d. 5, Tuebingen: J.C.B.Mohr, 1986.
 Robert Stupperich (Hrsg), *Reformatorsche Verkuendigung und Leben-*

